

**증권 다이제스트**

이탈리아 밀라노 A급 오피스에 투자하세요!  
**한국투자 밀라노 부동산투자신탁1호 (파생형)**  
**단독 모집!**  
 모집기간: 2.19(화) ~ 2.21(목)

**한국투자증권**  
**밀라노 부동산펀드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이탈리아 경제, 금융,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공모펀드 '한국투자 밀라노 부동산투자신탁1호(파생형)'를 오는 21일까지 단독 모집한다. 국내에서 펀드로 모집되는 약 550억원과 펀드 운용사가 이탈리아 현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포함해 총 1240억원을 오피스건물에 투자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기업 피렐리 타이어(Pirelli Tyre) 글로벌 R&D센터가 투자 부동산의 100%를 임차 중이다. 임대차 기간은 2032년 12월까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연 6.5% ELS 등 10종**

KB증권은 22일까지 KOSPI2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유로스탁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6.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801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6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797호(1인텍스 스탭다운형)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모바일증권 나무**  
**카카오페이 제휴 CMA상품**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는 증권사 최초로 국내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연 3.5%(세전) CMA 발행어음 상품을 판매한다. 업계 최초로 주식수수료 평생무료를 시작했던 NH투자증권의 모바일 브랜드 나무가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연 3.5%(세전) 특급 CMA 발행어음 상품을 선착순 10만명에게 제공한다. 상품가입 한도는 200만원이며, 6개월 만기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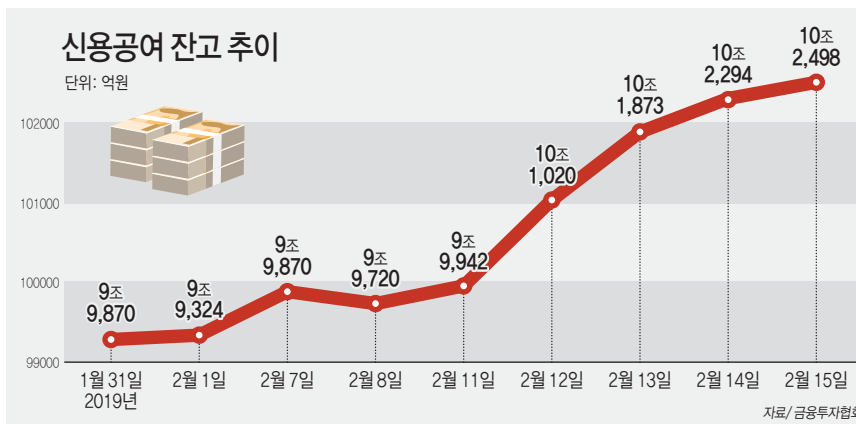
# 빛내서 주식투자 10조... 신용거래 '주의보'

신용거래용자 연초 이후 최고치 증권사, 남북경협·정치테마주 등 신용거래 제한으로 '리스크 관리'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였던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또 다시 증가하며 연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0조2498억원으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12일,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말한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해 5월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을 찍은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10월부터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0조 원 아래로 유지돼 왔다. 증시 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10%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났고, 또 다시 빛을 내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신용거래용자의 이자율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크게는 세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개인투자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다.

실제 신용거래용자 잔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셋대우의 경우 3개월 동안 돈을 빌리면 6.9%(체차법·구간별 이자율 적용)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잔고가 많은 키움증권의 경우 이자율은 9% 수준이다.

이밖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투자증권(8.8%), 삼성증권(8.6%), NH투자증권(8.4%), KB증권(8.0%·체차법) 등도 8%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다. 1억을 빌리는 투자자들은 3개월 내 8%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상승률과 더불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부터는 전체 신용거래용자 잔고 중 코스닥의 잔고가 유가증권시장을 역전해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근 큰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남북경협주,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미래셋대우는 유시민 테마주 와이비넷, 오세훈 테마주 진양산업 등에 대해 신용거래에 제한을 뒀고, NH투자증권은 황교안 테마주 한창제지, 남북경협주인 한국내화 등을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설정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마주 같이 위험한 자산에는 신용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증권사가 대응하는 걸로 안다"면서 "금융당국도 증권사 대출잔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한화건설, 1829억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수주

**경기도서 기술형 입찰 발주**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에서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1829억원 규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되는 7호선 전철 연장사업(총 3개공구) 중 2공구 공사다. 터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철도분야의 대형 기술형 입찰로 관심을 모았으며,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3개 대형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다.

이번 공사는 설계대 가격 비중이 65대 35에 달하고, 설계심의 점수에 7% 강제

차등을 적용하는 등 설계 기술력이 심의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한화건설 측은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도심지 통과구간 최신의 Modern-Rock TBM 공법(발파공법이 아닌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활용한 굴착 공법)을 적용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한 별도의 피난대피시설을 계획하는 등의 혁신설계를 선보였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사동~자금동 구간 광역철도 4.412km와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신호소 1개소 등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전철 연장사업)는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을 비롯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제2공구 103 정거장 조감도. /한화건설

한 지역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화건설 박용득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올해는 기술형 입찰, 민간제안사업 등 수익성 중심의 토목환경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신한은행, 보육시설에 학용품세트 전달

'입학 축하 학용품키트' 제작 봉사 위성호 은행장·임원 등 48명 참여

신한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전국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첫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봉사활동은 매년 은행장과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총 2622명에게 학용품 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국 166개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 770명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학용품 키트를 전달받은 청소년들은 2013년 초등학교 입학 시 신한은행의 첫번째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통해 학用品을 지원받은 학생들이며, 중학교 입학에 맞아 다시 한번 신한은행과 인연을 맺게 됐다.

위성호 은행장과 진옥동 은행장 내정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왼쪽부터), 위성호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가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첫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자 및 임원·본부장 48명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에게 필요한 노트, 필통 등 학용품 키트를 만들어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당행 임직원들이 지난 1년간 승진, 생일 등 개인 및 소속부서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부하는 '좋은 날 좋은 기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준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NH농협금융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

NH농협금융지주는 19일 임직원 및 가족봉사단이 서울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NH농협금융 우리농산물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농협금융의 자긍심을 공유하고, 이웃사랑 실

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김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건강을 기원하는 오곡을 담은 건강희망상자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전통문화와 결합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신한금융투자 4년연속 가장존경받는 기업 1위

신한금융투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CA)가 주관한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금융투자산업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6년째를 맞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 주주, 직원, 사회, 이미지 가치 등 기업 전체의 가치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인증제도다.

신한금융투자는 혁신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금융투자업종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금융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신한금융투자 윤병민 인재육성부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며 직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시장을 선도해 나가지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